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 적응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최인숙^{1*}, 박유미²

¹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²혜전대학교 유아교육과

The Influence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ocial Support and Adaptability to College Life on Teacher's Efficacy

In Sook Choi^{1*}, You Mi Park²

¹Divis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²Divis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Hyejeon College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적응과 교사 효능감의 수준과 관계를 분석하고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활 적응이 교사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과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3년제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 유아교사 39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 된 연구도구는 사회적지지 척도, 대학생활 적응 척도, 교사효능감 척도(STEBI)를 예비유아교사에게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지지 및 대학생활 적응, 교사효능감은 모두 3점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지지 및 대학생활 적응, 교사효능감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지지 및 대학생활 적응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ocial support and adaptability to college life on teacher's efficacy. The study subjects were 394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instruments were Social Support Scale, Adaptability to College Life Scale and Teacher Efficacy Scal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 program. Frequency and percentage were used to determine the general background of the pre-service teachers. To examine social support, adaptability to college life and teacher efficac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was conducted. To assess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adaptability to college life and teacher efficac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effects and relative explanation of esocial support, adaptability to college life and teacher efficac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From the study results, first,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had higher social support, adaptability to college life and teacher efficacy rates than average. Second,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among social support, adaptability to college life and teacher efficac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hird, teacher efficac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was influenced by their social support, and adaptability to college life. The study results suggest that a teacher efficacy improvement program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hould be provided for ensuring their social support. The study results also emphasize the necessity of social support and adaptability to college life improvement program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Keywords : Social Support, Adaptability to College Life, Teacher Efficacy,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이 논문은 2019년도 원광보건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Corresponding Author : In-Sook Choi(Wonkwang Heath Science Univ.)

email: ischoi00@wu.ac.kr

Received April 30, 2019

Revised June 3, 2019

Accepted July 5, 2019

Published July 31, 2019

1. 서론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학업 풍토와 대인관계, 정서적 지원 등 생활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형성되어 새로운 적응이 필요한 시기가 시작된다. 즉, 학업적 성취를 강조하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여서는 자율적인 학업을 수행하는 학생인 동시에 취업을 위한 진로 준비를 해야 하는 과도기적인 현실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Blustein[1]은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성인으로서 지니는 생활의 책임을 떠나 자신의 내적 심리와 외부적인 환경을 탐색하면서, 졸업 후 갖추어야 하는 직업 선택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하여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대학생이 학교생활을 만족스럽게 보내는 것은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서 학교생활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학생들은 수업뿐만 아니라 졸업 이후 직장에서도 잘 적응하고 업무에 있어 높은 성취도와 내재적 동기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2]. 하지만 대학생활 적응이 성인으로서 사회화하는데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학생의 현실은 대학 입학 시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부터 자신이 원하는 학과나 적성, 소질 등을 고려하는 것보다 성적이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대학 및 전공을 결정함으로써 상당수의 대학생이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를 경험하거나 대학 입학 후 학교 및 학과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3].

그나마 예비 유아교사들은 타과에 비해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및 장래희망을 고려하여 선택한 학생들이 많으나 유아교육과 학생으로서 대학생활을 하면서 전공에 대한 학습 및 진로, 적성 등에 회의감을 갖는 경우가 있다[4]. 일반적으로 대학생활 적응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활 적응을 예측하는 원인으로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심리적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불안 요소이며, 사회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로 보았다[5].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며 개인의 삶에서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을 시작하거나 지속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즉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형성된 사회적 관계로부터 받게 되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로 하는 지식과 방향을 제시해 준다[6]. 또한 스트레스 상황이나 부정적인 문제로

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완화시켜 주는 간접적 기능뿐 아니라 문제 상황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적응을 향상시키는 직접적 기능을 한다[7][8][9]. 또한 대학생이 가정 및 대학교에서 직접 경험하는 대인관계, 학교 및 가정에서의 역할 및 행동을 통해 형성된 부모, 친구, 지도교수의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는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긍정적인 행동을 시작하거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10][11]. 이처럼 교직을 준비하는 대학생활에서 부모, 친구, 교수와의 사회적 지원망을 통해 형성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은 예비유아교사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2].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들의 발달단계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13][14]. 유아교사라는 직업이 점차적으로 복잡해 지고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직업 전망에 대한 예측도 긍정적이지만은 않지만 부모나 교수, 친구들의 지지는 자신의 직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영유아 교사라는 직업은 교육활동에 있어서 수업에 대한 활동이 교사의 전문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어 표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사 스스로 교직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실제로 영유아를 위해 몸과 마음을 함께 해야 할 직업이며 대상이 어린 영유아이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은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환경에 잘 적응하고 교직에 대한 애착과 높은 자아존중감, 교사로서의 자기효능감이 형성될 필요가 있으므로 예비 유아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는 이를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이 중요하며 교사로서의 자아존중감의 한 일환으로 교수효능감을 들 수 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예비유아교사들이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기 지각, 즉 자기효능감이 선행되어 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효능감은 대학생의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이며[15], 자신의 학업과 진로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예비유아교사의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하다.

교사효능감은 교사로서 갖추어야 하는 지도능력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개인적 변인이며 이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또한 교사 효능감은

교사가 인식하는 신념과 기대에 대해 설명하는 강력한 변인으로서 교사효능감이 높은 영유아교사는 교사 자신의 직무영역은 물론 영유아발달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6]. 이처럼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효능감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교사 효능감은 영유아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인 대학생활 또는 그 이전부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원 양성기관에서는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들은 있으나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학생활 적응,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영유아교육을 책임지는 예비유아교사가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였을 때 유아교사로서의 효능감이 증진될 수 있다는 결과를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지지 및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교사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교사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적응, 교사효능감의 수준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적응, 교사효능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지지 및 대학생활 적응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예비 유아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 적응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전라북도 I시와 충청남도 H시에 위치한 대학교 2곳의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 3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을 하지 않거나 자료로 사용하기 어려운 설문지 15부를 제외한 총 394부가 분석되었다. 조사기간은 2018년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먼저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연구에 대한 목적

및 필요성을 설명한 다음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Sample Component

	Spec.	Frequency	Percentage	Total(%)
Gender	Male	19	4.8	394 (100.0)
	Female	375	95.2	
grade	grade 1	146	37.1	394 (100.0)
	grade 2	145	36.8	
	grade 3	103	26.1	

2.2 연구도구

2.2.1 사회적지지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경구[17]의 사회적 지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가족과 친구의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가족의 사회적지지 8문항, 친구의 사회적지지 8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채점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으면 가족의 사회적 지지, 친구의 사회적 지지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검사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rach's α 계수는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92,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90, 사회적지지 전체는 .93으로 나왔다.

2.2.2 대학생활 적응

예비유아교사의 대학생활적응을 검사하기 위해서 이경아 외[18]가 개발하고 타당화 한 '간편 대학생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하인요인별로 전공만족 5문항, 대인관계 4문항, 학업적응 6문항으로 총 15문항이다. 이 문항의 채점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높은 경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대학생활 적응 검사의 신뢰도 산출결과 Cronbrach's α 계수는 전공만족 항목은 .83, 대인관계 항목은 .85, 학업적응 항목은 .79, 대학생활 적응 전체는 .80으로 나타났다.

2.2.3 교사효능감

예비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 Enochs와 Riggs[19]의 과학 교수효능감 척도인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 (STEBI)를 이

분려[20]가 ‘유치원 교사’에게 맞게 수정·보완하고 이를 수정한 안상미[21]의 25문항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문항의 구성요인은 일반적 교사효능감과 개인적 교사효능감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 교사효능감(12문항)은 교사의 역할이나 태도가 유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며, 개인적 교사효능감(13문항)은 교사 자신이 유아에게 교사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 항목이다.

척도는 5점 Likert식 방식이며 총점은 25점에서 12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 효능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교사 효능감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은 일반적 교사효능감 .75, 개인적 교사효능감 .86이며 교사효능감 전체는 Cronbach's α 값은 .79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또한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 적응, 교사효능감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적응,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또한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지지 및 대학생활 적응이 교사 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상대적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사용되었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적응, 교사효능감의 수준

먼저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 적응, 교사효능감에 대한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에 대한 결과는 아래 Table 2와 같다.

Table 2. Cognition level for each factor

variable	sub-factor	M	SD
social support	social support from family	4.19	.70
	social support from friend	4.18	.65
social support total		4.19	.61
adaptability to college life	satisfy to major	3.89	.87
	satisfy to interpersonal	4.00	.86
	adaptation to academic	3.33	.78
adaptability to college life total		3.68	.78
teacher efficacy	general efficacy	3.11	.38
	individual efficacy	3.30	.46
teacher efficacy total		3.21	.37

사회적 지지의 평균값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 전체의 평균은 4.10($SD=.61$)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 항목인 가족의 사회적 지지는 4.19($SD=.70$), 친구의 사회적 지지에서는 4.18($SD=.65$)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의 총점의 평균은 3.68($SD=.78$)로 하위 요인별로 대인만족이 4.00($SD=.86$)으로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냈고, 전공만족은 3.89($SD=.87$), 학업적응은 3.33($SD=.78$)로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사효능감($M=3.21$, $SD=.37$)에서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일반적 효능감은 3.11($SD=.38$), 개인적 효능감은 3.30($SD=.46$)으로 일반적 효능감보다 개인적 효능감의 점수가 조금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3.2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적응,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적응, 교사 효능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교사효능감의 전체와 사회적 지지의 총점($r=.62$, $p<.001$)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의 하위 요인에서는 가족의 사회적지지($r=.57$, $p<.001$), 친구의 사회적지지($r=.55$, $p<.001$)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교사효능감도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 적응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지지 총점과 대학생활 적응 총점 간에는 $r=.71$,

Table 3. Correlations for each factor

variable	social support from family	social support from friend	social support total	satisfy to major	satisfy to interpersonal	adaptation to academic	adaptability to college life	general efficacy	individual efficacy
social support from friend	.65***								
social support total	.91***	.90***							
satisfy to major	.57***	.57***	.62***						
satisfy to interpersonal	.56***	.58***	.63***	.69***					
adaptation to academic	.60***	.61***	.67***	.84***	.67***				
college adjustment	.64***	.65***	.71***	.92***	.83***	.93***			
general efficacy	.45***	.42***	.48***	.58***	.63***	.65***	.65***		
individual efficacy	.53***	.54***	.59***	.70***	.70***	.75***	.75***	.50***	
teacher efficacy total	.57***	.55***	.62***	.74***	.77***	.81***	.81***	.83***	.50***

$p < .001$

1. social support from family, 2. social support from friend, 3. social support total 4. satisfy to major 5. satisfy to interpersonal 6. adaptation to academic, 7. adaptability to college life, 8. general efficacy, 9. individual efficacy, 10. teacher efficacy total

$p < .001$ 로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대학생 활 적응의 하위요인 간에도 전공만족($r = .62, p < .001$), 대인만족($r = .63, p < .001$), 학업적응($r = .67, p < .001$)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사회적지지 높을 수록 대학생활 적응 점수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교사효능감 전체와 대학생활 적응 총점($r = .81, p < .001$)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 하위요인에서는 전공만족($r = .74, p < .001$), 대인만족($r = .77, p < .001$), 학업적응($r = .81, p < .001$)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예비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이 높으면 대학생활 적응 점수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3.3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적응,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지지 및 대학생활 적응이 교사 효능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한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1.987, 1.724로 자기상관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중공선성의 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공차한계(Tolerance), 분산팽창요인(VIF) 값을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1이상(.41 ~ .84 .90)의 값으로 나타났고, VIF값에서는 10이하(1.00

~ 1.04 1.12)의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아래 Table 4와 같다.

Table 4. social support and adaptability to college life factor affecting teacher efficacy

	B	β	t	R ²	Ads. R ²	F
(constant)	41.70					
social support from family	.59	.36	6.94***	.38	.32	120.77***
social support from friend	.56	.32	6.15***		.06	
(constant)	44.52					
adaptation to academic	.75	.41	7.58***	.67	.69	271.42***
satisfy to interpersonal	.81	.31	7.54***		.07	
satisfy to major	.39	.19	3.31***		.01	

$p < .001$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지지 및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 요인들이 교사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 중 가족의 사회적지지가 32%로 가장 높았으며 친구의 사회적지지가 6% 추가하여 총 38%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F=120.77, p<.001$). 즉, 가족의 사회적지지와 친구의 사회적지지는 예비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에서는 학업적응에서 69%로 가장 높았으며, 대인만족은 7%를 추가하여 76%의 영향력을 나타내었고, 그 뒤로 전공만족이 1%를 추가하여 총 77%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F=271.42, p<.001$). 학업적응, 대인만족, 전공만족도가 예비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 적응은 교사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적응, 교사 효능감의 수준 및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지지 및 대학생활 적응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적응, 교사효능감의 수준을 알아본 결과 사회적지지 전체 평균은 4.19, 대학생활 적응 전체 평균은 3.68, 교사 효능감 전체 평균은 3.21로 나왔다.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 중 전공 만족은 3.88로 높게 나온 데 비해 학업적응이 3.33으로 다소 낮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교사효능감 역시 다른 변인에 비해 각각 3.11, 3.30으로 다소 낮은 평균은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진로가 대부분 결정된 유아교사를 선택하고 가정이나 친구로부터 지지를 받지만 현실적으로 이전교육과 달리 전공에 대한 어려움과 적응과정으로 인하여 다소 평균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에 비해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다소 낮은 결과를 보인 이용현[22], 황혜지[2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대학생이 가정 및 대학교에서 직접 경험하는 대인관계,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는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다수 있다[10][11].

예비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 중 개인적 교사효능감이 일반적 교사효능감보다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면 일반적 교사효능감과 개인적 교사효능감의 수준에 대해 일관적인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먼저 김하니[24], 배성희[25] 연구에서는 일반적 교사효능감 보다 개인적 교사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박경[26] 연구에서는 일반적 교사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렇게 다른 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교육의 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인 일반적 교사효능감과 교사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 개인적 교사효능감이 예비 유아교사가 갖는 다양한 경험이나 환경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고려되어질 수 있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적응, 교사 효능감의 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교사 효능감과 사회적 지지 간에는 $r=.62$, 교사 효능감과 대학생활 적응 간에는 $r=.81$ 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 적응 간에는 $r=.71$ 의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교사효능감도 높아짐을 알 수 있으며, 대학생활 적응 역시 적응을 잘 하는 예비유아교사일수록 교사효능감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교사 효능감은 교사 자신의 직무영역[17][27], 의사결정, 자아존중[28]과도 관계가 있으며, 교사-유아간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29]을 보고하였다.

예비유아교사의 교직 선택 동기가 대학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를 보면[30] 능동적인 교직 선택이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12], 이러한 교직선택의 능동적 동기가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아진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해[31] 예비유아교사의 대학생활의 적응을 통해 교직선택의 능동적 동기를 높이고 나아가 교사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도 높아지는데,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사회적지지 역시 대학생활 적응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다수의 연구결과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5][23][32][33]. 예비유아교사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활 부적응에 대한 예방 및 완화가 되어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34]에서 사회적 지지가 예비유아교사의 대학생활적응을 돕고 이를 기반으로 교사로서의 자신감 즉, 교사효능감을 개발해 나가는데 주요 변인이 됨을 예측할 수 있다.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적응이 교사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는 38%의 영향력을 나타내었고, 대학생활 적응은

77%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는 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33], 예비유아교의 교사효능감이 사회적 지지와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34]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남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도 하나 남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역시 본 연구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35].

예비 유아교사들은 처음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개인적 교수효능감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지만 유아교육 전공 교육을 받으면서 점차적으로 개인적 교수효능감이 높아진다. 반면에 일반적 교수효능감은 처음에는 현실적 가능성 보다는 이상을 지향하는 경향으로 개인적 교수효능감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거나 경험을 쌓으면서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36].

다른 직업에 비해 교사, 특히 영유아교사는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부모, 친구, 학과교수의 사회적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자신의 적성 및 흥미, 능력과 전공분야가 불일치할 경우 전반적인 대학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 개인과 가족에게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의 낮은 효율성을 초래하여 비효율적인 결과를 가지게 될 수 있다. 반대로 적절한 사회적지지로 인하여 전공학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함께 대학생활의 적응이 잘 이루어진다면 교사로서 필요한 교사효능감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를 양성하는 데 있어 적절한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활 적응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나아가 교사효능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예비유아교사들이 교사양성과정에 잘 적응하여 영유아교사로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정과 대학교의 연계된 사회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정서적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며,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이러한 부분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적응, 교사 효능감에 대하여 평균점수를 비교하는 수준에서만 분석되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다양한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는 어떤 변인들이 교사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적응이 교사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양적으로 접근하였으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사회적 지지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내적, 외적 요인을 함께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 사료 된다.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적응, 교사효능감에 대해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적용되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도 이루어져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References

- [1] D. L. Blustein, "Decision-making and vocational maturity: An alternative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30, pp.71-97. 1987.
DOI: [https://doi.org/10.1016/0001-8791\(87\)90026-1](https://doi.org/10.1016/0001-8791(87)90026-1)
- [2] R. M. Ryan, E. L. Deci,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Vol.55, No.1, pp.68-78. 2000.
DOI: <https://doi.org/10.1037//0003-066x.55.1.68>
- [3] Y. J. Song,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Dong-A University. Seoul, Korea, 2014.
- [4] J. Y. Kim,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Ego-resilience, and College Adjustment in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Master's Thesis, Kangwon University, Kangwon, Korea, 2011.
- [5] S. S. Baek, H. Y. Cho, "Influence of Empathy, Anxiety, and Social support o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in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9, No.5, pp.2841-2852, 2017.
- [6] S. Y. Park, "An Analysis of a Mediation Effect that Social Support has on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sychology Capita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erceived by Students in College of Educ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2, pp.169-193, 2017.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17.17.2.169>
- [7] J. H. Kim, B. Y. Choi,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maturity", *Korea Association of Adolescent Welfare*, Vol. 17, no. 4, pp. 143-169. 2015.
DOI: <https://doi.org/10.19034/kayw.2015.17.4.07>
- [8] H. T. Kim,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 Smartphone Addiction on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of Effect Depression, Impulsiveness, Anxiety Variables*.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Sahmyook University. Seoul, Korea, 2016.
- [9] S. Y. Kwok, L. Cheng & D. F. Wong, *Family Emotional suppor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job satisfaction among chinese white-collar worker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16, No.3, pp.561-582. 2015. DOI: <https://doi.org/10.1007/s10902-014-9522-7>
- [10] J. W. Lee,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of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Social Support, Career Motiva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and Career Maturity*, Ph.D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2016.
- [11] C. M. Ruud, *College student social networking and its relationship to perceived social support*, Ph.D dissertation, University, Illinois at Urbana. 2013.
- [12] M. H. Kang, "The Analysi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 between Motivation for the Selection of Teaching Profess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17. pp.423-445. 2018.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18.18.17.423>
- [13] J. E. Park, J. A. Lee, J. Y. Lee. "The Influence of Attachment 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Poverty", *Korea Association of Adolescent Welfare*. Vol.13, No.3. pp.93-116. 2011.
- [14] S. C. Whiston, B. K. Keller, "Expanding Research Concerning Family Influences on Career Development: Cultivating a Number of Brown Spot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32, No.4, pp.612-617, 2004. DOI: <https://doi.org/10.1177/0011000004266009>
- [15] M. Dinther, F. Dochy, M. Segers. "The contribution of assessment experiences to student teachers' self-efficacy in competence-based education",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Vol.49, pp.45-55. 2015. DOI: <https://doi.org/10.1016/j.tate.2015.02.013>
- [16] Y. H. Woo, The Effects of Being Child Care Facility Accreditation System or Not on Child Care Teachers' Efficacy Belief.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Daegu, Korea, 2007.
- [17] K. G. Jeon, "Development of the Social Support Scale",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Vol.6, No.3, pp.285-304. 1999.
- [18] K. A. Lee, H. L. Shin, N. H. YOO, K. H. Lee,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Inventory-Short Form",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9, No.2. pp.739-754, 2008. DOI: <https://doi.org/10.15703/kjc.9.2.200806.739>
- [19] L. Enochs, I. Riggs, "Further development of an elementary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 *Science Education*, Vol.74, No.6, pp.625-637, 1990. DOI: <https://doi.org/10.1111/j.1949-8594.1990.tb12048.x>
- [20] B. R. Lee, *The Relationship Among Organizational Climate, Job satisfaction and Teacher's Sense of Efficacy in the Kindergartens*. Master's Thesis, Ehw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1998.
- [21] S. M. Ahn, *The interactions between kindergarten teachers and children by teachers' efficacy belief*. Master's Thesis, Ehw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2002.
- [22] Y. H. Lee, *The Relationship Among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college students on adjustments university life*, Master's Thesis, Hanil University &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Jeonju, Korea. 2016.
- [23] H. J. Hwang, *The effect of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f college students on adjustments university life*, Master's Thesis, Kwangju woman's University, Kwangju, Korea, 2018.
- [24] H. N. Kim, *Impact of emotional intelligence, teacher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n happiness among daycare teachers*. Master's Thesis, B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2012.
- [25] S. H. Bae, "The Effect of the Happiness of child care teacher on teacher's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Bus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22, pp.25-44, 2009.
- [26] K. Park, *The influence of Kindergarten Teacher' Job-Satisfaction and Efficacy on internal external Behavior Problems, Self-Esteem of Early Childhood*, Ph.D dissertation, Kwangju Women's University, Kwangju, Korea, 2013.
- [27] I. H. Hwang, S. H. Jang, "Effe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Empathy Ability Scale and Job Efficiency on Teacher's Job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2, No.2, pp.232-242, 2012. DOI: <https://doi.org/10.5392/jkca.2012.12.02.232>
- [28] G. O. Hong, H. W. Kang, "Relation between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decision making, self-esteem, and their teaching-eficacy". *Journal of Young Child Studies*, Vol.14. pp.5-17. 2011.
- [29] U. Y. Chon, *Influence of childcare teachers' empathy ability and ego-resilience on the interaction between a teacher and an infant*. Master's Thesis,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2018.
- [30] J. Y. Park, S. Y. Auh, "The Effect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Life Scripts and Motivation of Choosing a Teaching Profession on the College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5, No.1, pp.133-158, 2018. DOI: <https://doi.org/10.22155/jfece.25.1.133.158>
- [31] K. C. Kim, H. S. Jung, "Influence of prospective preschool teachers' motivation for choosing teaching profession and aptitude on teacher efficacy",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1, No.6, pp.135-153, 2016. DOI: <https://doi.org/10.20437/koaece21-6-06>

[32] J. U. Kim, J. H. Kim,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Attachment,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13, No.9, pp.248-259, 2013.
DOI: <https://doi.org/10.5392/jkca.2013.13.09.248>

[33] J. Y. Song.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Freshmen's Adaptation to College Life",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2. pp.335-345. 2017.

[34] A. S. Hong, H. Y. Shin, "The Effect of Teacher's Efficacy and Social Support Perceived by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23, No.4, pp.111-126, 2014.
DOI: <https://doi.org/10.1002/pits.10018>

[35] H. J. Lee,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Stress Coping on College Adjustment among Male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Honam University, Kwangju, Korea, 2018.

[36] M. H. Dembo, S. Gibson, "Teacher's sense of efficacy: An important factor in school improvement",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Vol.86, No.2, pp.173-184, 1985.
DOI: <https://doi.org/10.1086/461441>

박 유 미(Yu-Mi, Park)

[정회원]



- 2006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문학 석사)
- 2009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유아교과 (문학박사)
- 2007년 3월 ~ 2009년 2월 : 우송정보대학 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전임교수
- 2009년 3월 ~ 현재 : 혜전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 교육학

최 인 숙(In-Sook, Choi)

[정회원]



- 1999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교육학 석사)
- 2005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문학박사)
- 2005년 6월 ~ 2018년 2월 : 군산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원장
- 2018년 3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 교육학